

대학도서관 사서의 위기와 대처

Crisis and Response of Librarians at University Libraries

이 시 영(Si-Young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위기극복을 위한 대처 |
| II. 정보환경의 변화 | 1. 도서관계의 각성 |
| 1. 정보기술의 발달 | 2. 법적·제도적 정책수립 및
평가제도 보완 |
| 2. 기록 매체의 변화 | 3. 서비스 영역확대 |
| 3. 사서의 전문성 | 4. 경영체제혁신 |
| III. 교육환경의 변화 | V. 결 론 |
| 1. 대학의 환경 변화 | |
| 2. 사서직의 안정성 | |

초 록

오늘날 대학도서관 사서는 변화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전문직으로서의 그 직업적 정체성과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사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정보환경과 교육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역할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존재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동안 지켜온 사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사서의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현상과 문헌을 통해 파악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 대학도서관, 사서, 정체성, 정보환경, 교육환경, 정보욕구

ABSTRACT

These days, librarians working at university libraries have been suffering from uncertainty about their professional identity and their position stability by ever-changing circumstances. Therefore, librarians at university libraries have to adapt quickly to the informational and educational environment which are constantly changing. They have to alter their role to meet information needs of users and only then can boost their value to maintain their longstanding identity as an expert on information storage and ac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which threaten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librarians working at university libraries by analyzing the literature and phenomena and to research an effective counterplan to create conditions for librarians to take pride as professionals in stable circumstances.

Keywords: University Libraries, Librarians, Identity, Information Needs, Educational Environment, Informational Environment

* 광주대학교 도서관 사서(leesy@gwangju.ac.kr)

• 접수일: 2010년 8월 10일 • 초심사일: 2010년 9월 9일 • 최종심사일: 2010년 9월 27일

I. 서론

오늘날 대학도서관 사서는 변화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전문직으로서의 그 직업적 정체성과 안정성을 위협 받고 있다. 정체성이란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본질'을 의미한다. 사서의 정체성이란 사회 조직체계에서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로서 인식되는 변화되지 않는 본질적인 그 무엇을 의미한다. 직업의 안정성은 개개인의 질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여건이라 할 수 있다.

시대적 환경에 따라 전문가의 역할은 변화되고 발전한다. 사서 또한,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단한 발전과 변화를 통하여 자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은 사회적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급변하는 상황에서의 적응과 발전에 대한 주체意識의 부족으로, 사서직의 안정성에 안주하여 자신들의 책무와 역할을 방기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대학도서관이 정보기술의 발달로 자원의 소장보다 접근을, 인쇄매체보다 전자매체를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함에서 기인된다. 즉 이용자의 정보추구행태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위한 조직구조와 서비스 형태 그리고 사서의 역할에 있어서의 체질변화의 필요성을 간과하여 그 역할이 모호해 졌으며 정보기술의 발달로 유입된 여타 영역들과의 분명하지 못한 한계로 말미암아 정체성의 손상과 함께 가치관의 혼돈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의 변화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감소는 인원 감축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동안 누려온 대학도서관 사서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사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정보환경과 교육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정보욕구 충족을 위해 역할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존재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그동안 지켜온 사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사서의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현상과 문헌을 통해 파악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서의 정체성과 위기에 관련한 선행문헌으로는 디지털 환경에서 사서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 이경민¹⁾의 논문과 추락하는 '대학의 심장', 흔들리는 '사서의 정체성'이란 주제로 사서의 정체성 위기와 관련한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저변의 논리를 전개한 이제환²⁾의 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물론, 기타 정책 자료나 세미나자료에서도 미약하게나마 다뤄지고는 있으나 그

1) 이경민, "디지털 환경에서 사서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9권, 제1호(2008. 6), pp.157-174.
2) 이제환, "추락하는 '대학의 심장', 흔들리는 '사서의 정체성,'" 圖書館學論集, 제28집(1998. 8), pp.505-525.

포커스가 학문의 태동과 동시에 논란이 되었던 전문성과 관련된 자료이거나 미시적인 정책현안에 맞춰진 듯하다.

II. 정보환경의 변화

1. 정보기술의 발달

정보기술은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국가의 정보화를 위한 모든 이론·방법론·시스템 등을 총망라한 용어이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통신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정보기술은 작게는 자동화·전산화·시스템화를 위한 것이지만 크게는 정보사회의 구축을 그 목표로 삼는다. 통신기술은 시간과 거리의 장벽을 극복하면서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정보시스템들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이 기술의 응용분야로는 비디오텍스, 전자우편, 전자문서교환, 정보은행, 행정전산망 구축 등을 들 수 있다.³⁾

정보기술은 도서관과 관련기관의 조직적 통합과 구조개편, 직무내용 및 역할의 변화와 인력구성의 다양화, 정보기술 및 전자매체에 대한 예산배정 및 지출비율의 증가, 건물의 구조변경과 공간확장 및 엄격한 기능성의 약화, 수집매체의 전자화, 장서구성의 다양화, 비선형적 다중경로를 이용한 정보접근 및 검색형태와 신종 정보봉사의 출현(온라인데이터베이스의 접근 및 검색봉사, 전자잡지의 제공봉사, 미소장원문의 제공봉사, 인터넷 정보봉사) 그리고 학술적 정체성의 변화(물리적·공간적·기능적 정체성의 약화와 게이트웨이적 기능의 강화) 등을 초래하였다.⁴⁾

오늘날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정보환경 변화는 사서들의 업무환경과 이용자들의 정보추구 행태를 변화시켰다. 즉 대학도서관 사서의 고전적 업무에 정보기술과 관련한 지식이 추가로 요구되고 도서관자동화와 네트워크의 발달은 사서들의 업무패턴과 이용자들의 정보탐색, 선택, 획득 등의 행태 변화를 가져왔다.

정보기술의 발달이 대학도서관에 미치는 구체적 사례로는 업무자동화를 들 수 있다. 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토털시스템 구축과 업무자동화는 상당기간 대학도서관이 정보사회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했다.

그러나 이는 도서관업무의 아웃소싱을 유발시켰고 네트워크와 웹 환경의 발달은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도서관 출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도서관자동화가 완결되고 가장 이슈가 되었던 서지데이터 공동목록 체계가 구축된 이후의 도서관계는 그동안 전문성을 담보해 왔던 대표

3) Daum 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9j1137a>> [인용 2010. 5. 20].

4) 윤희윤, "정보기술이 대학도서관의 경영관리에 미치는 영향," 정보관리학회지, 제19권, 제1호(2002. 3), p.111.

적 업무인 분류, 편목을 다운로드함으로써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낳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포털시스템의 발달은 도서관이 아닌 곳에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탐색하고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직접적인 도서관출입을 멀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정보기술 발달로 인한 업무체계와 이용자 정보이용 행태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서관은 전통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서들 또한,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역할을 찾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급기야는 그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형편에 처해 있다.

전통적으로 사서는 도서관이라는 기관을 중심무대로 삼아 활동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도서관의 역할도 변모하고 있으며 유사한 기관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사서에게 활동무대의 확장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되는 한편,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부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한다.⁵⁾

2. 기록 매체의 변화

정보기술의 발달은 학술정보자원의 매체변화와 다양화를 가져왔다. 이는 도서관의 기능에 있어서도 정보 소장 개념에서 정보 접근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십여 년 전만 해도 대학도서관 서비스 제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인쇄 자원이었으나, 그 동안 디지털 도서관 컬렉션의 새로운 형태가 급격히 등장함에 따라 보다 다원화하고 광범해진 도서관 컬렉션을 구축, 서비스하고 보존해야 하는 과제가 생겨났다. 도서관 컬렉션은 기본적으로 학내에서 교수, 학습 및 연구를 위해 필요로 하고 사용되는 지식정보자원으로서 점차 다음과 같은 자원을 포함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 전통적 인쇄자원: 대부분이 디지털 등가물이 없고, 대학의 교수 및 연구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 기본적인.
- 라이선스된 디지털 컬렉션: 영리 및 비영리 출판사들에 의하여 새로운 디지털 형태로 생산되거나, 대학의 공유 디지털 컬렉션을 위해 입수된 저널과 도서와 같은 전통적 학술간행물로 구성됨.
- 디지털 “구축 콘텐츠(built content)”: 대학 내부에서 생산되었거나, 고문서, 지도, 시각이미지, 음성 파일과 같이 기존의 컬렉션에서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 자료들.
- 월드 와이드 웹: 웹상에서 어떤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포맷으로 된(그리고 매우 변화하는 품질과 지속성을 가진) 정보자원의 컬렉션.

5) 이경호, 김상진, “기업환경 조성을 통한 한국문헌정보학의 정체성 확립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2호(2003. 6), p.341.

- 기타 디지털 자원: 대학 커뮤니티에서 디지털 포맷으로 생성된 데이터 세트, 기타 일차 연구자료 및 교수자료들⁶⁾

특히, 전자매체의 발달은 그동안 아날로그 문헌을 수집, 정리, 가공, 제공해 왔던 사서 본연의 업무에 디지털 자원의 생성 및 관리 업무를 추가시켰으며, 이는 도서관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작용했다. 이러한 전자자원은 데이터베이스화되고, 데이터베이스의 생성과 유통은 주로 밴더들의 몫으로 사서들은 완성된 콘텐츠의 선택에만 관여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들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고, 이는 정보자원의 이용자 접근 측면에서 편의성 증대를 가져오는 반면,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도서관 방문의 횟수를 줄게 하고 도서대출 횟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전자매체의 발달은 그동안 인쇄매체가 주류이었던 도서관의 장서 콜렉션의 변화를 가져왔고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다. 이는 사서에게 전자자원 생성과 활용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추가시킴과 동시에 이용자 측면에서는 정보접근 행태의 변화를 가져왔다.

3. 사서의 전문성

현대 사회에서 전문직은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인 관할권을 확립하고,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유를 누리며, 직무의 조건과 내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업'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물론 직업적 자유와 권한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따라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인정은 전문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공공성과 이타성이 보장될 때 확고해진다. 따라서 전문직이 되려면 지식기반의 전문성과 교육과정의 체계성 그리고 멤버십에 대한 자기 규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여기에 직업적 책무와 윤리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해질 때, 전문직의 위상은 비로소 확고해 지는 것이다.⁷⁾

Daum 백과사전에 의하면 '도서관법령이 정하는 사서직원은 도서관 자료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⁸⁾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서에 대한 철지난 정의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사서란 도서관이라는 공간과 자료에 예속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사서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개념을 벗어나서는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 없음을 전제하는 듯하다. 이는 비교적 확고부동한

6) 광동철, 김기태, 윤정옥, "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와 문제점 분석 : 미국, 영국, 호주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6. 3), p.17. Prepared for the Systemwide Library and Scholarly Information Advisory Committee, *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Librarians and the Office of Systemwide Library Planning*, 2004, <<http://libraries.universityofcalifornia.edu>> [cited 2005. 8. 26] 재인용.

7) 이제환, "다시 생각해 보는 사서의 전문성,"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15집(2003. 4), p.87.

8) Daum 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1s0365a>> [인용 2010. 5. 20].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속된 기관이나 자신의 업무 수행의 도구들과 관련하여 정의되고 있지 않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사회적으로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의사와 변호사의 경우, 의사의 전문가적 행위는 시간과 장소에 저촉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술을 펼 수 있는 반면, 변호사는 궁극적 업무수행의 행위를 협의 개념으로 본다면 비교적 정해진 시간과 장소(법정)의 제약 속에서 그 행위를 행사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사서 또한 변호사와 같이 정해진 시간과 공간 내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 직종으로 보여 진다. 물론, 사서의 경우 법적 강제성이 약하고 제도적으로 매우 느슨하며 행위에 따른 결과의 정도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욕구정도로 견주어 볼 때, 의사나 변호사 대비 심각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헌정보학자들은 '정보전문가'나 '정보중개자'나 하면서 사서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무게를 '정보요구의 파악과 정보서비스의 제공'에 두려고 하지만, 일반인들의 반응은 차라리 냉소적이었다. 그들에게 사서는 여전히 책을 정리하고 빌려주는 사람이었다.⁹⁾

또한, 사서들은 정보제공과 같은 대민관계에서 직접적인 정보봉사로 직업적인 보람을 느끼지만, 실제 도서관에서는 디지털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스템관리 차원의 업무가 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되고, 전문직으로서 사서들이 가지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정보봉사 차원에서 발휘할 기회가 부족한 상태이다.¹⁰⁾

이와 같은 사회적 인식과 실태는 사서의 전문성의 핵심인 정보서비스가 이용자가 원하는 적합정보가 되지 못하고 일반적인 서지정보나 물리적 형태의 도서 제공에 그친데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게다가 아직은 도서관 정보서비스 환경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처럼 실시간으로 적합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제반 여건상 역부족인 것이다. 따라서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와 함께 정보가 재화가 되는 시대에 정보를 대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사서의 사회적 인식은 아직도 바람직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이러한 까닭에 이용자들은 도서관에서의 사서의 역할을 전문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듯하다. 오히려 도서관에서 편안하게 책이나 보면서 간간히 이용자에게 책이나 빌려 주는 정도로 폄하되어 인식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듯 전문적 직업인으로서의 사서와 이용자 간의 사회적인식의 괴리는 사서의 존재가치를 약화시키고 정체성을 잃게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관중을 불문한 모든 도서관 사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그동안 사서로서의 전문성이 유지되어 왔다고 자부하는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에게도 심각한 위기의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도서관법 제35조(업무)에 의하면 『대학도서관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과 교직원 등

9) 이제환, "전문직 이론을 통해 본 사서직의 전문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3, 6), p.67.

10) 이경민, 전제논문, p.172.

의 지식정보 함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효율적 교육 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로 기술되어 있다. 도서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업무를 통하여 사서의 역할을 고찰해 볼 때, 오로지 사서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드러난 조항은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전문성을 띤 역할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인가?

〈표 1〉은 21세기 대학도서관의 존재 형태이다. 이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특성에 따른 기능 확충과 전문가로서 사서의 역할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다.

〈표 1〉 21세기 대학도서관의 존재 형태¹¹⁾

도서관 유형	특 성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	- 자동화된 도서관과 전자도서관의 결합 형태(Hybrid형) - 외부의 접속, 검색 허용(현재 중규모 이상의 대학도서 관이 해당)
상호작용 도서관(Interactive library)	- 소장보다 접근을, 인쇄매체보다 전자매체 중시 - 인터넷·네트워크 통한 상호연결, 상호작용 - 세계 차원의 정보공동체 형성(OCLC Questionpoint)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	- IPL(Internet Public Library), Refdesk, com - VRD(Virtual Reference Desk)
학습자원센터(Learning resource center)	-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학습의 중심체, 원격교육의 주체 - 도서관+멀티미디어센터+원격교육

Ⅲ. 교육환경의 변화

1. 대학의 환경 변화

모든 대학에는 고유한 정치적 구조와 문화가 있으며 나아가 외부세계에 대처하는 나름의 방식도 있다. 대학도서관은 모기관의 정치적 구조의 일부, 문화의 일부, 반응의 일부이다. 고등교육에 미치는 요소는 예산지원의 변화, 시장의 압력에 대한 반응, 학생 수의 변화 등이다.¹²⁾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개혁은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상대적으로 대학 내에서 발언권이 높지 않는 대학도서관의 인력감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대학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사서직원의 타부서전출, 전임 사서직의 인력 감축과 충원 및 증원 억제, 대체인력의 증가 등을 예시할

11) 박준식,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 협의회 제23차 실무자 Workshop 자료집 : 서비스의 개발을 통한 대학사서의 이미지업 전략,”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 협의회(2008. 7), p.17.

12) John M. Budd, 대학도서관 : 변화와 발전, 한국학술정보교류협의회 옮김(서울 : 유로, 2007), p.18.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이 이러한 대체인력인 공익요원, 계약직, 인턴사원,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을 배제한다면, 그 즉시 대학의 학술연구지원이나 정보서비스 업무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업무가 마비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¹³⁾

현실적으로 직면한 대학의 환경변화 문제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구조 조정으로 인한 대학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대학운영의 긴축재정이 이슈로 대두되었고, 그 중 도서관 예산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듯 도서관 예산이 현격하게 축소되는 현실에 반해 이용자의 욕구는 증대되고, 정보자원의 다양화와 그에 따른 비용부담은 도서관 자료구성의 질적 수준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즉 정보자원의 지속적 축적과 보존을 필요로 하는 도서관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실정에 놓이게 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전국의 각 대학에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되었던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교육역량강화사업, BK21, NURI사업, 교육선진화사업 등으로 그 성격과 명칭을 달리하면서부터 도서관 장서구입이나 자동화 사업에 지원되었던 재정적 지원이 끊김으로 인해 대학도서관의 집서환경은 더욱 피폐해 졌다.

게다가 청년실업의 문제는 대학교육을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그 수준을 격하시키고 대학도서관을 취업준비실로 둔갑시켰다. 이는 생존과 결부되는 본능과 같은 차원의 문제로 어떠한 이유로도 그 현상을 뒤엎을 수는 없는 듯하다.

하지만 대학교육 본연의 임무인 진리탐구와 학문연구가 외면당함에 따라 지식 생산의 중심에 있는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무시된다면 대학은 정체성을 잃게 되고 그 품격 또한 저하될 것이다.

□ 학령인구의 변화와 학생 특성의 변화

- 학생수 부족 ⇒ 대학경영의 압박요인 ⇒ 대학의 구조조정, 학문분야 설치·운영 변화 등 가속화 ⇒ 대학의 경쟁력과 위상전반에 영향, 지방 소재 대학에게 위기 요소로 작용 추정
- 학령인구 및 대학 진학자 감소 사유
 - ⇒ 출산율 감소, 결혼관 변화, 무자녀 가정 증가
 - ⇒ 대학교육의 혜택, 진로 등과 관련하여 위상 변화
 - ⇒ 대체 고등교육 기회와 대학 평생교육체제 확충
- 향후 대학교육의 변화 추이(추정)
 - ⇒ 대학교육 받는 절대 인구 증가
 - ⇒ 캠퍼스 중심의 정규대학교육 인구는 감소
 - ⇒ 학생 개념이 연령, 인종, 수학적태 등에 따라 다변화
 - ⇒ 성인학습자와 시간제 학생, 기혼자 및 외국학생의 증가
 -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방향 전환

〈그림 1〉 시대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¹⁴⁾

13) 광동철, “대학도서관의 변화 추이 및 전략적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 (2006. 12), p.230.

<그림 1>은 시대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로 학령인구 감소와 향후 대학교육의 변화 추이를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학생들의 특성을 살펴 대학도서관의 주 고객인 학생들의 욕구파악의 도구로 삼아야 하겠다.

2. 사서직의 안정성

대학 내 행정조직체계에서 타부서 직원들의 사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이름 하여 본부부서는 도서관을 포함한 여타 외곽부서들을 보다 저급한 하부구조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학 행정운영상 주요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뿐만 아니라 예산 배정이나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면하기 어렵다(국공립과 사립대학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업무형태에 따른 인식의 문제이다. 즉 도서관은 조용하고 편안한 곳 그리고 사서는 별로 하는 일없이 봉급을 받는 직원 심지어 도서관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로 전문성을 무시하려는 의도적 인식이 팽배하다.

작금의 대학도서관은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확고부동한 전문성 확보의 실패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으로 직업적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지만, 모기관이 되는 대학의 환경 변화로 인한 불안은 그 체감의 정도가 더욱 크다 하겠다. 즉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예산삭감의 제1순위의 영예를 안은 대학도서관은 직장으로써 전문성과 안정성의 확보를 담보하지 못하는 불안한 곳으로 향해 가는 듯하다.

또한, 사서의 전문성을 극구 부인하고 일반 행정직종과 순환근무를 일삼는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그렇게 할 것이면 왜? 처음부터 사서로 채용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수년간 사서로 근무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일반 행정부서로 보내고 일반 행정부서 직원들을 도서관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서 무슨 이득이 생기는 것일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국내 우수대학들은 무슨 소리인가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대학들 중 특히 지방의 후발 대학들에서는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도서관으로 배치된 일반 행정직원들은 사서의 전문성에 흠집을 내고 급기야는 자신들이 전문적 지식이 없어 업무를 분담 받을 수 없었음을 숨기고 사서들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어서 업무의 공조를 이루지 못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도 한다. 게다가 자신들이 수행 가능한 기능적 일들이 도서관의 전체 일 인양 과장하기도 하여 사서의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서관자동화로 인한 정리업무의 아웃소싱과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감축 등의 요인이 맞물려 사서직원의 감축이나 신규채용의 부재로 이어지고 부족한 사서의 자리를

14) 광동철,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관리자 세미나 자료집 : 대학도서관발전과 위상 강화 방안,"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제27차(2007. 7), p.15.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채우는 일은 대학도서관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은 대학존립의 근본적 철학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장차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잃게 하는 일이며, 이로 인해 곧 우리사회의 경제상황은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예단은 지나친 비약이고 기우일까?

IV. 위기극복을 위한 대처

1. 도서관계의 각성

가. 사서와 도서관단체의 각성

현재 대학도서관이 맞고 있는 위기는 대학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책무에 소홀하고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다. 정체성을 잃어가던 상태에서 환경의 변화에 무관심하거나 수동적으로 몸을 내맡김으로써 스스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¹⁵⁾

물론, 대학도서관의 현실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당사자인 사서의 몫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문헌정보학은 비교적 역사가 짧은 학문으로 현재 대학도서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서들의 상위 직급들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사서직의 선두그룹으로 보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학문적으로 매우 척박한 환경에서 과정을 이수했고 거의 대부분이 인턴과정 없이 그리고 모델로 삼을 만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업무를 개척하며 각자의 현장에서 종사해 왔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변화는 새로이 개척된 업무가 정착도 되기 전에 기존의 사서들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망망대해로 몰아세웠다. 가장 시급하게 대두된 도서관자동화는 사서들에게 예고된 공포를 맞이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담력코스와의 같았다. 아마도 생소한 지식의 결핍에 따른 스트레스와 정보기술에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하는데 대한 두려움으로 아킬레스건을 숨기고 살았는지도 모른다. 또한, 모기관인 대학의 교육환경의 변화는 그 어떤 명분과 당위성으로도 사서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당면한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는 채 문제의 심각성을 회피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로는 절대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그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15) 이제환, 전계논문(1998), p.508.

전문직의 기본여건으로 권익단체의 설립은 필수적 요소이다. 따라서 사서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구성과 그 운영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중의 구별 없이 전국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로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있다. 그동안 도서관계의 발전을 위한 한국도서관협회의 노력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그 노력들이 타 전문업종의 권익단체와 견주어 볼 때, 사서들의 권익 대변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사회조직체계로서 사서직의 인식 증대와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울타리 내에서 전문성을 부르짖고 현실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학술적 연구 활동 등이 주류를 이루지는 않았나 생각된다. 게다가 그 중심적 활동이 공공도서관에 치우침으로 인해 대학도서관은 소외감을 느낄 정도였다.

한편, 대학 도서관 사서들의 권익단체로는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가 현존하고 있으며, 이는 각기 기관의 성격에 따라 구성된 단체로서 통합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적 사안을 관철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3개 단체를 통합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2008년 10월에 구성되어 대학도서관 직원의 권익을 신장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도서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한국 도서관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2010년, 5월, 15일에는 한국사서총연합회 창립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그림 2 참조).

- 도서관이 도서관 본연의 모습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 정책의 파행을 올바르게 잡아나가고
- 사서는 사서의 전문영역에서 안정적으로 그 역할을 발휘하여 도서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며,
- 도서관의 공공성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향상시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림 2〉 한국사서총연합회 창립대회 발기취지문 중

또한, 정보사회의 위상에 걸맞게 웹사이트를 통한 사서들의 커뮤니티가 운영 중이다. 일부 사서들은 이러한 공간을 통하여 업무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서관계의 현실적 애로를 토로하기도 한다. '도서관메일링리스트'를 비롯하여 열린도서관 동호회(올리브), 사서e마을, 학교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학도넷), LibNews, 깨비깨비, 리스토피아넷, 도쟁이, '사서커뮤니티' 등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다 카페나 블로그, 개인홈페이지까지 보태면 사서들이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은 다양하다. '한국문헌정보학엘로우페이지'에는 커뮤니티, 블로그, 자료실 등에 포함된 웹사이트까지 올려두고 있다. 각 사이트들은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나, 방문자의 조회 수가 기록되는 사이트만을 살펴보면 이용자들의 수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화를 위한 공간은 마련되어 있으나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¹⁶⁾

이상에서 거론한 단체나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사서들의 당면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사회 조직체계에서 우리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중추적 역할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다만, 관중을 불문한 사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권익 단체의 탄생으로 떠나없이 사서라면 그곳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관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

나. 문헌정보학의 정체성 확립

사서는 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유기적 존재이다. 이러한 사서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며, 이들이 제반 사회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하고 발달해 가는지에 대한 이해와 논의는 도서관과 문헌정보학의 발전에 핵심적 근간이 된다.¹⁶⁾

현실적으로 당면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자들의 자각과 함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실제적인 문제로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전공필수 교과목들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 학계차원에서 공통적으로 필수 교과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교과목의 명칭 또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의 교육과정은 학부제 도입 이후 필수과목의 이수학점이 줄어들고 남은 학점은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에 대한 학점 이수를 위해 할애되고 있다. 이는 인재육성 측면에서 예비사서들의 전문성 획득과정에 심각한 장애가 되며 결과적으로 사서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4년의 학부과정 중에 그것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학점을 할애한 상황에서 몇 안 되는 필수과목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전문적 지식을 얼마나 습득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늬만 사서인 허울뿐인 전문가를 양산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서자격증 남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어수단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게다가 학교마다 소속된 교수님들의 관심분야에 맞춰 분별없이 개설되는 교과목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며 사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유치 및 확보 차원에서 소정의 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는 제도는 없애든지 아니면 보다 강화된 조건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기록관리는 문헌정보학의 계파로 그 맥락이 문헌정보학에 있음을 확고히 해야 하며 사서 교사가 현장에서 교과교사들에 비해 폄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사서직의 전문성은 정신성과 기술성 속에서 훈련되어야 습득되는 것이다. 정신성은 문헌정보학

16) 김용근, "'사서커뮤니티'를 통해 본 대학도서관의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4호(2007. 12), p.418.

17) 김갑선, "사서의 직업사회화 영향요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09. 12), p.382.

학문과 현장에 대한 사상, 철학 또는 직업윤리가 어우러지는 정신적인 문제이다. 이 주제는 지금 강단과 현장, 어디에서도 보기가 어렵다. 기술성이 온통 정신을 빼앗아 가버린 형국이다.¹⁸⁾ 이는 일선 도서관계의 분위기가 철학과 윤리를 중시하기보다는 정보화의 도래에 따른 기술적 측면의 고취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용한 기술도 익혀야 하겠지만 확고한 정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다음 기술적 도입이 이루어져야 주객이 전도되지 않을 것이다.

사서는 지적 서비스의 질과 효과를 결정하는 주체이다. 다시 말하면 사서는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지적 소양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재교육과 심화과정 교육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계는 현장 사서들의 지속적인 재교육을 위한 방편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서자격등급에 따른 사서 체계의 계층을 이룰 필요가 있다. 사서자격증은 정사서 1급과 2급, 준사서 등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지위체계상 자격증의 등급에 대한 장단점은 없다. 이런 실정이라면 굳이 자격 등급을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하부구조에 자리하는 준사서가 거의 없어서 사서체계의 계층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없이 똑같은 사서로서 업무 또한 경중이 없이 맡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헌정보학은 도서관과 사서를 존립시키는 철학이요 역사다. 문헌정보학계의 명확한 방향설정과 목적을 향한 정진은 사서가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2. 법적·제도적 정책수립 및 평가제도 보완

가. 법적·제도적 정책수립

탁월한 전문성의 사회적 인식이 확립된다 하더라도 법적 장치가 없고,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 확고한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심오한 학문적 이론의 바탕 하에 강력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도서관의 존립과 사서의 위치를 굳건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이다(그림 3 참조).

그동안 도서관법이 제정되고 수차례 걸쳐 개정되었지만 대학도서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항이 없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사서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법령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서관법령에 의하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자격을 갖춘 자를 사서라 명시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느슨하여 자격증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자격자를 필요로 하는 기관인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강제성이 없어 법적 효용성이 미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18) 김용근, “한국 사서직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4호(2002. 12), p.23.

<p>□ 내용적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도서관 진흥에 대한 정책수단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법은 문화부 소관 법령으로서 대학의 교육기본시설에 대한 시설, 인력, 장서 기준을 규정하고 집행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짐 ⇒ 기존의 도서관법에서 도서관 시설, 자료, 사서직원 기준 등을 공공도서관 등만 규정하고 대학도서관은 대학설립운영기준에서 규정 ⇒ 도서관은 설립목적과 이용대상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 수집자료, 서비스 형태 등을 달리 하며 이를 획일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p>□ 대학도서관진흥법(안)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의 행·재정적 책무성 강화 ⇒ 대학도서관 진흥 기본계획 수립 ⇒ 대학도서관에 대한 시설·직원·장서 등의 기준 제시 ⇒ 국내외 학술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대학도서관 평가 ⇒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협력 봉사

〈그림 3〉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의 필요성¹⁹⁾

한편, 대학의 사회적 책무의 측면에서 대학도서관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모기관인 대학의 규정
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상위법의 규제를 받는다면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개방의 당위
성과 함께 운영 면에서도 보다 확고한 독립성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평가제도 보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그 나라의 대학수준이고, 그 대학의 수준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소가 대학도서관의 수준이다. 대학도서관은 사회가 대학에 부여한 역할, 즉 교육 연
구 사회봉사를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의 평가는 대학도서관의 현상
황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한 기본단계라고 할 수 있다.²⁰⁾

대학도서관의 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 논의의 중심은 “평가기준의 합리화이
다. 지금의 평가는 현황평가로서 도서관의 서열을 매겨 정부보조금을 차등화 하는 방식이다. 그런
데 이 방식으로는 개별도서관들의 현상을 진단하여 그 위치를 매길 수 있으나 각 도서관을 어떤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하다. 평가는 원래 현상 진단 외에 미래 방향 설정이라는 목적이 있
다. 평가지표와 척도를 합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개별 도서관들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노력하
면 어느 등급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알게 하여 부족한 부분을 달성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유도

19) 박주호, “2009 전국대학도서관대회 : 정책발표-대학도서관의 중요성과 주요 현안과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
육학술정보원(2009. 6), pp.47-48.

20) 박철완 등, “대학도서관 평가지표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2008. 6), p.148.

할 수 있어야 한다.”²¹⁾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대학도서관 평가제도 및 통계시스템 개선 내용을 보면 <그림 4>와 같다.

<p>□ 현황 및 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대학도서관 평가제도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부적절성 :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형식적 평가, 편리함만을 강조한 정량적, 장서 위주의 평가 ⇒ 대학종합평가에서 대학도서관 평가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낮음 • 현재 대학도서관 통계시스템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기관에 따른 통계내용이 상이하고 일관성, 상세성, 정확성이 결여 ※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 관련 통계 발표기관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도서관협회, 한국교육개발원 <p>□ 추진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도서관 평가제도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도서관 평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평가에서 대학도서관의 비중 상향 조정 · 장서위주 평가지표를 자원공유(상호대차, 공동목록, 학위논문), 장서회전율(장서폐기 포함),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지원액 등으로 평가지표를 개선 ⇒ 대학 특성화 평가지표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지원액 평가지표에서 자원공유(상호대차, 공동목록, 학위논문)를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지표를 수정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주관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적극 참여 • 대학도서관 통계시스템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자료의 일관성, 정확성 및 상세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학도서관 통계 데이터의 작성 ⇒ 실태조사 실시기관의 단일화, 양식통일 및 내용 강화 ⇒ 국가 도서관 통계시스템 참여를 통한 온라인 기반의 통계작성 시스템 구축

<그림 4> 대학도서관 평가제도 및 통계시스템 개선²²⁾

대학도서관의 평가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학자들과 사서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가 방식의 개선에 대한 문제는 유보한 채로 남아 있다. 이에 평가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해 보면,

한때, 국내 대학들의 특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이 이루어 졌듯이 대학도서관도 각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대학의 도서관이 똑같은

21) 박준식,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2), p.75.

22) 이선,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실무자 Workshop 자료집 : 도서관계의 변화, 그 변화의 방향은?”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제23차(2008. 7), p.51.

모습과 동일한 정보자원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상호 간의 정보공유는 크게 의미가 없다. 즉, 부유한 대학은 많은 정보자원을 소유할 것이므로 소규모의 대학도서관으로부터 받을 만한 자원이 없어 상호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모든 대학도서관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상호협력을 통하여 부가가치가 상승될 것이다. 규모와 특성에 상관없이 유사한 종류 및 범위의 자료 구매로 인한 예산의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저널부문의 평가지표는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에 반해 학술저널에 대한 평가지표는 대학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학과별 전공당 저널 종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일반적인 통계지표 요구사항으로 인쇄형태와 전자형태 저널을 중복 되게 카운트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재고해 볼 만한 여지가 있으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활용도 되지 않는 외국저널을 대학마다 모두 구비케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지표는 대학도서관간의 상호협력 및 자료의 공동 활용의 가치와 필요성을 반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평가는 단위기관의 장단기 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평가지표가 잘못 된다면 예산낭비는 물론이거니와 그 조직의 효용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동안 대학도서관에 해당하는 평가는 대학 전체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평가 항목이나 지표가 정량평가에 치우쳐 유용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감이 있었다. 계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건만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3. 서비스 영역확대

가. 지역사회개방

지식기반사회에서 질 높은 사회적 삶의 유지는 새로운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하는데 있다. 보편화된 공유개념의 지식정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제공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사회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학도서관은 그간 학내의 이용자에게만 국한되었던 봉사체제 확장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문호를 개방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은 대학도서관 봉사영역 확대와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책무를 동시에 완성할 수 있는 방책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도서관은 현재 적절한 정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비서비스 영역에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 정보서비스 영역을 확장 할 것인가를 해결하는 노력을 통하여 정보접근의 평등권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²³⁾

23) 조윤희,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07. 3), p.290.

그러나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공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인정되고 안정된 재원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독립된 조직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도서관의 전문직이 확보되어야 한다.²⁴⁾

나. 주제전문사서제 도입

전통적 의미의 대학은 학문연구와 진리를 탐구하는 지적활동의 터전이다. 대학도서관은 대학 구성원의 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창조를 돕기 위한 장치로 존재한다. 대학도서관의 사서는 지적 결과물들의 수집, 가공, 보존 및 요구에 따른 유통을 통하여 지적산물을 재생산하게 하는 고도의 전문적 과업을 수행해 왔다.

Wendy Pratt Lougee에 의하면 도서관의 역할이 다음과 같이 변하고 있다고 한다.

- 도서관의 전문성이 강조될 것이며
- 정보의 서술에 그치지 않고 분석할 것이며
- 단순한 지원 기관이 아닌 동등한 협력자의 역할을 할 것이며
- 도서관 영역이 어느 물리적 건물에 제한되지 않고 캠퍼스 전체로 확장된다고 했다.²⁵⁾

또한, Brodie(2005)는 대학도서관 역할로서 첫째, 물리적 가상적 자원과 서비스의 조합으로서 하이브리드(hybrid) 도서관의 역할, 둘째, 모든 포맷의 정보자원 및 특수자료 그리고 대학의 교수, 학습, 연구 및 경영을 지원하는 대학 내에서 생성된 전자자원의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하는 웹 기반 출판 기능, 셋째, 다양한 대학 내의 커뮤니티와 특정이용자 그룹의 기대에 적합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⁶⁾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미래의 대학도서관의 형태, 기능 및 역할의 변화는 이전의 사서들보다는 다양하고 주제별로 세분화된 심도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여기서 주제별로 세분화된 심도 있는 지식의 제공이 곧 전문성을 대변할 것이다. 따라서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도서관의 사서는 변화에 순응하여 폭넓은 지식과 전문적 소양을 키워 당면한 지식기반사회의 주역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성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최근,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대학의 학술적 기능이 강화되고 이용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세분화·전문화되어 감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

24) 장우권,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연대와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2009. 3), p.44.

25) 김정현, “미래 대학도서관 역할의 전망: USC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제27차(2007. 7), p.44. [저자가 Wendy Pratt Lougee의 저작에 관한 서지사항을 기술하지 않음], 재인용.

26) 조윤희, “사명, 비전을 통해 본 대학도서관의 핵심 가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4호(2005. 12), p.72. Maxine Bordie, Macqarie University Library Strategic Plan 2005-2006, 2005. <<http://www.lib.mg.edu.au/about/libpubs/strategicplan2005.pdf>> [cited 2005. 10. 25]. 재인용.

지만, 기존서비스를 대체할 대안의 필요성 등과 같은 도서관계 내부의 위기의식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제전문사서에 의한 서비스제공은 학습과 연구, 그리고 교육을 목적으로 대학 구성원과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이자, 도서관과 사서의 위치를 진정한 전문가의 위치로 재정립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그러나 아직까지 주제전문사서제 도입은 자격제도나 구체적 업무형태, 영역이나 지침이 없이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행처럼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할변화와 전문성향상을 위한 방편으로 충분히 고려되고 연구되어야 할 분야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 지식경영 활용

대학은 '질 높은 강의'와 '심도 깊은 학문연구'로 사회가 바라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지와 암묵지를 통합하여 DB로 구축하고 이를 제공해야 한다. 즉 지식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국내의 우수대학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학별 행정, 정보서비스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불필요한 문제점을 제거하여 우리대학에 필요하고 경쟁력 있는 지식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문화에서 대학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공유의 문화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²⁸⁾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사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겠다. 즉 사서는 연구자의 새로운 지식과 연구를 통한 지적산물의 생성을 돕고 그 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직접적인 생산에도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은 사서에 주어지지 않으며, 교수들의 사서에 대한 인식은 동반자적 관계보다는 필요에 의한 사무보조자 정도로 취급되고 있다. 이에 대학사서의 사서교수직제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만하다. 더불어 자료 활용이나 도서관 이용자 교육이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고 도서관 내에서 사서교수에 의해 실시된다면 사서의 지위 향상은 물론 전문성을 더욱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장성이 증시되는 문헌정보학과의 실습과정 수행의 연계에도 유리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모든 대학에서는 대학 기록물에 대한 아카이브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관리 또한 문헌정보학의 맥락으로 간주해 왔던 우리들은 대학 내 아카이브에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대부분 대학의 아카이브는 도서관이 아닌 타부서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외국대학의 경우와는 배치되는 현상이다.

27) 정재영,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제 운영방안 연구: 3개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3호(2009. 3), pp.121-122.

28) 장우권, 대학도서관 지식경영과 지식관리시스템(광주 :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2), p.108.

뿐만 아니라 대학 내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강의연계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러닝 학습 자원이 생성되고 유통되고 있지만 이 또한 도서관이나 사서와는 무관한 일이다. 우리가 그토록 주장해 온 지식기반사회의 정보매개자로서의 역할인 정보의 유통과 서비스를 남에게 맡긴다면 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확립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4. 경영체제혁신

이제 대학교 교육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무한 경쟁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지 못한다면 도태되고 말 것이다. 대학도서관 또한 생존의 일환으로 조직의 재평가와 개편이 이루어지고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고객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다음과 같은 성과측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1)대학 당국의 변화요구에 신속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객관적 데이터 필요 2)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을 적극적 유도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3)도서관 운영의 비효율성 및 낭비적 요소를 도출하여 업무개선 4)도서관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등이다.²⁹⁾

대학도서관의 경영철학 또한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관리'의 대상이 아닌 '경영'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경영체제의 확립과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공개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적 독립성을 키워 소비기관에서 생산기관으로 이미지의 변신을 시도하여야 한다. 더불어, 대학도서관의 경영전략이 바뀌어야 한다. 자료 중심적 경영에서 고객 중심의 경영으로 바뀌어야 하며,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공존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³⁰⁾

더불어 어떤 대학도서관도 정보기술을 외면한 채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대학도서관의 경영관리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의 긍정적 영향의 요체는 업무처리와 자료이용의 신속성, 편의성, 효율성, 정확성, 유연성 등이다. 반면에 부정적 영향의 핵심은 비용증가, 기술맹신적 사고와 지나친 의존성, 인간적 접촉의 감소, 정보의 과부하 현상, 테크노스트레스의 유발 등이다. 그것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려면 당연히 경영관리의 요소로 간주하여 바람직한 수용 자세와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³¹⁾

한편, 정보자료 유통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예전의 폐가제로 운영되던 시절의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사서를 통하지 않고선 자료를 인계 받지 못했다. 따라서 미약하게나마 정보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그동안 간과했던 사서의 정보서비스 영역을 되새겨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29) 이무진,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관리자세미나 자료집 : 대학도서관 정보봉사시스템 성과측정,"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제29차(2009. 11), p.36.

30) 이제환, "전환기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경영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1호(2002. 3), p.17.

31) 윤희운, "정보기술이 대학도서관의 경영관리에 미치는 영향," 情報管理學會誌, 第19卷, 第1號(2002. 3), p.101.

정보가 재화이고 우리의 직업을 유지시키는 도구라면 의사가 진단 후 처방전을 발부하듯이 사서 또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처방전을 배부해야 하지 않을까? 현 체제의 도서관은 마치 시중 서점에서 필요한 책을 뽑아서 계산만 하면 되듯이 대출창구에서 빌리는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러한 시스템이 사서의 존재가치를 저하시킨다면 도서관 정보서비스 측면에서의 정보유통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즉 이용자 편리 측면만을 고려하여 개념 없이 방치했던 검색대를 우선적으로 정보서비스 영역으로 끌어와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이용자가 사서에게 진단을 받고 정보처방전을 발급 받는 정보유통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정보자원의 유료화도 고려해 봄직하다. 물론 많은 논란이 있겠고 그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보가 곧 부를 창출한다고 전제 했을 때,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서는 자원봉사자로 불려져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또 그래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 그 변화는 경우에 따라 도서관을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도래는 오히려 도서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재화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정보행위에 대한 기술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하였다. 이제 도서관은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기회로 바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³²⁾

V. 결 론

정보기술을 통한 네트워크의 발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보 제공으로 삶의 형태를 변화시켰다. 따라서 지식정보의 축적과 유통을 근간으로 하는 도서관은 거대한 시대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도서관 자동화와 전자도서관의 출현은 도서관의 운영주체인 사서의 위치를 위협할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문헌정보학계의 학자나 사서들은 사서들의 새로운 역할수행으로 업무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전문성도 증대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도서관자동화는 그동안 사서의 전문영역으로 고수되었던 분류와 편목 업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아무나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적 업무의 성격으로 전락시킨 감이 있으며 나아가 정리업무 전체를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경향의 풍조를 낳는데 일조했다. 또한 전자도서관의 출현은 정보자원의 데이터베이스화로 사서를 통하지 않고서도 언제 어디서나 정보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사서의 존재가치가 의심받기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이 이용의 편의성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가 정보기술(IT)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귀결된 듯도 하다.

더욱이 대학 본연의 기능인 진리탐구와 연구를 통한 지적산물의 창조(생산)라는 본질적 기능이

32) 정준민, "사회환경의 변화와 도서관의 진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회(1999, 1), p.34.

다소 후퇴되고 학생들의 취업이 우선시 되는 대학의 존재 가치변화로 인하여 대학도서관 또한 지식정보자원의 활용기능보다 독서실로서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도서관의 사서는 본질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체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로 현실을 재조명하고 각계각층에서 본연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먼저 사서 개개인의 각성으로 직업에 대한 철학을 정립하고 일관되게 전문성을 고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문헌정보학계는 현장의 변화에 부응하여 교과과정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정보환경에 걸맞는 인재를 배출해야 할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서에 대한 전문적 가치를 부여하는 자격제도와 일선의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그리고 봉사대상자 수를 적용한 사서인원 배치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정부 관련기관의 실질적 지원이 확충될 때 사서의 전문성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반이 조성된다면 인재양성을 최대자원으로 삼는 대한민국은 지식기반사회에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세계 각국의 선도적 위치에서 우위를 점유해 갈 것이다.

미래의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필요시 병원이나 약국을 찾는 경우와 같이 정보를 얻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찾는 곳이 되어야 하며 이용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실행으로 정보를 재화로 여기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서는 이용자 욕구를 해소해 주는 해결사로서 전문가적 위치를 확보해 가야 할 것이다.

정보환경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도서관 사서의 직업적 정체성과 안정성의 위기는 그동안 둔감했던 우리들의 자각을 일깨우는 동기이며 앞으로도 급격하게 변화될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예비동작 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